

# 사랑과 정으로 아름다운 가정들

어름바람에 하느거리는 실버들, 아침해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강물, 그 모든것을 정겨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유보도를 따라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 그들가운데는 낯익은 사람들의 얼굴도 보인다.

김정숙영양방직공장의 리명순, 강철민부부, 무계도전차운전수들이 허명금, 최홍기부부, 수십년세월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 출신 문성심, 한철호부부...

그들은 수십년세월 한일터에서 함께 일하며 사랑을 꽃피우고 가정을 이루었으며 그들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다정한 혁신자부부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구슬다락-경부동에 새집들이한 주인공들이 되었다.

《어보, 새로 들어온 직포공 영순이가 실잇기를 숙련하지 못해 속상해하는데 퇴근후에 그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 저녁에 좀 늦어질것같아요.》

《좋은 생각이요. 아이적정은 말고 어서 그렇게 하요.》

김정숙영양방직공장의 리명순, 강철민부부 사이에 오가는 말이다.

《우리 오늘도 애국의 주행길을 뚫어야 달려보지요.》

《알았습니디. 교대운전사동지, 하하하...》

이번에는 험무무계도전차사업소의 허명금, 최홍기부부

가 주고받는 대화였다.

꽃피는 웃음속에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모습, 평범한 근로인민의 세상에서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고있는 행복한 이 모습은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생활의 한 단면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창건터에 행복의 보금자리인 평양기계대학 교원의 가정을 찾아주시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온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대주는 물론 안해도, 그리고 자식들도 모두 교원들이라는것을 아시고 이 가정은 교육자집안이라고 정답이 불러주시었다.

새집을 받아안은 이들을 축하하여 손수 축배를 부어주시고 온정어린 가정용품도 한가득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군인가정, 예술인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교육자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에게 바치는 교



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당장은 빛이 잘 나지 않지만 후날에 가서는 꼭 알찬 열매로 빛을 내게 된다고, 이런 좋은 집을 교원들이 받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가정은 조국의 미래를 맡아 키우는데 관심을 바쳐가는 애국가정이라고, 찾아온 보람이 있다고 기뻐하시며 대를 두고 전해갈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애국가정! 얼마나 긍지높은가. 바로 이런 가정들이 공화국의 그 어디에나 있다.

공화국에서 가정들은 언제나 화목과 활기에 넘쳐있으며 가정들의 교상한 롤리도덕은 사회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다.

가정이 사회에 아름다울수록 향기를 더해주는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모습, 그것은 덕과 정이 넘쳐나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공화국의 진모습이다.

## 폭력이란 무하는 범죄도시

얼마전 남조선의 《매일신문》에는 《전국이 범죄도시? 부부사이 흥기범죄 잇달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지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어난 범죄사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남조선에서 방영되고있는 영화인 《범죄도시 2》의 표현을 빌려 각지가 《범죄도시》인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부사이 흥기를 휘두른 범행은 그 어느 영화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사건들이라고 까뻐했다.

하더면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동안 남조선에서는 과연 어떤 폭력사건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6월 14일 오전 서울에서는 30대남성이 집앞에서 딸을

등고시키던 안해에게 흥기를 수차례 휘둘러대며 경찰에 체포되었다. 남편은 평상시에도 안해에게 폭력을 가한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인 6월 14일 전라남도 한 도서판에서는 40대남성이 직원에게 흥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리유인주 도서판직원이 안해책상에 앉아 책을 정리하는 소리가 책을 띄우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6월 15일에는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70대남성이 승진 환자(안해)를 치료해준 의사를 상대로 흥기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6월 16일 전라북도에서 40대남성이 처와 처남부부에게 흥기를 휘둘러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 하여 처와 처남의 안해는 살해되었고 처남은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6월 18일에는 인천에서 60대녀성이 집에서 남편과 딸다들중 남편의 가슴을 흥기로 찔러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녀성은 조사과정에 손자손녀를 들보는 문제를 두고 술을 마신 후 남편과 딸다들을 벌러다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흥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6월 19일 서울에서 60대남성이 80대남성의 배와 목 등을 흥기로 찌르고 달아난 살인미수사건이 일어났다.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끔찍하고 몸서리치는 사건들은 남조선사회의 폐륜패적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피해! 다녀서 피해자



가정폭력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다.



연속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인사건에 절규하며, 가정폭력

역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 전재고아들을 위한 유자녀학원의 설립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은 가벌치절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계속 실시되었다. 그 하나가 전재고아들을 키우는 유자녀학원들을 설립하도록 한것이다.

당시 미국에 의해 강요된 조선전쟁으로 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수많은 전재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전재고아는 가족한 전쟁의 어쩔수 없는 산물이라는 말이 있지만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해 전쟁시기에도 전재고아들이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39(1950)년 12월 어느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전재고아들을 국가가 맡아 키울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시었다. 그리고 다음해의 1월 13일에는 내각제31차전원회의에서 내각결정제192호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인민군장병 및 빨치산들과 애국렬사들의 유자녀학원설치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유자녀학원을 내출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를 구현한 내각결정 제192호를 국가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내각결정 제192호를 지지하는 근로자들의 군중집회가 진행되었으며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은 물론 기업가, 상인, 종교인들까지도 학원건설과 원아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로력과 자금,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해나섰다.

그리하여 전쟁의 준엄한 포화속에서 평양시와 각 도, 시 해방지역들에 전재고아들을 위한 6개의 애육원과 8개의 초등학원, 두개의 너자기술학원이 확보되어 일대일 전재고아들가운데서 3~6살의 어린이들은 애육원에, 7~12살

의 어린이들은 초등학원에, 13~18살의 청소년들은 군사학원, 기술학원 등에 받아들여 교육양육하는 정연한 전재고아육성체계가 세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재고아들을 양육할 학원들을 더 많이 세우게 하시는데 많은 애국렬사들이 마음껏 배움터에서 앞날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고려약들이 잇든 지성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황해남도 해주에서 급성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함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한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주시었다는 소식에 접한 문순옥 평천교과약공장 지배인은 아침일찍 공장으로 나와 긴급회의를 조직하였다.

회의에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마련한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당위원회에 전하시면서 지원약품들을 해주시당위원회에 보내주며 시장위원회가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는데 대해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급성장내성전염병을 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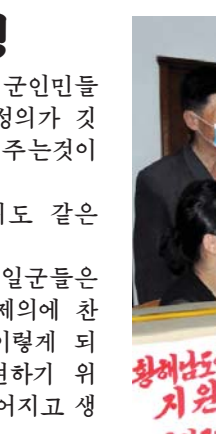
있는 해주시와 강령군인민들에게 우리 공장의 성의가 잇든 고려약들을 보내주는 것이 어때요?》

《좋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회의에 참가한 일꾼들은 한결같이 지배인의 제의에 찬동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고려약들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분담이 이루어지고 생산전투가 벌어졌다.

낮에 밤을 이어가며 생산전투가 긴장하게 진행되었지만 종업원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런 찾아볼수 없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덕과 정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대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우려는 문순옥지배인을 비롯한 평천고려약공장



평천고아들을 위한 지원약품들을

패독산을 비롯한 적지 않은 량의 고려약들이 마련되어 해주시와 강령군인민들에게 보내지게 되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덕과 정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대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우려는 문순옥지배인을 비롯한 평천고려약공장

본사기자

## 비록 나이는 어려도

년단위원장인 김권용 학생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해주시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적지 않은 의약품들이 들려져있었다.

유치원시절부터 학습과 글짓기, 좋은일하기를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던 그는 인민의 이름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는 아버지원수님의 뜻을 받든대로 적으나마 이바지하고싶은 마음으로 집에서 준비한 의약품들을 안고 찾아왔던 것이다.

김권용학생이 아니었다. 다른 학생들도 김권용학생과 똑같은 마음을 안고 성의껏 준비한 의약품들을 가지고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을 찾아왔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며 덕과 정의 힘, 집단주의위력으로 오늘의 국민을 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서 가속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의 한 단면이었다.

본사기자 립광훈



본사기자 립광훈

## 어느날 아침 나는 생활 습관대로 산보를 한 다음 집으로 올라가기 앞서 현관앞의 돌의자에 앉았었다.

출근길에 오르면 인민반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반색하며 인사를 건넸다.

《후유증으로 불편해하시더니 어땀습니까?》

현관문을 열고 나서서 인사할 건네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않는 나를 위해 두약을 마련해오고 색다른 음식들을 들고왔던 고마운 사람들이고 그들의 집식구였다.

참으로 좋은 이웃들속에 살고있다는 행복감에 마음은 절로 흥겨워졌다.

이때부터 익은 녀인의 상냥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아버님, 오늘은 몸이 거뜨하십니까?》

나는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다 돌아보니 진료소에서 의사로 일하는 30집 안주인이었다.

이렇게 반가울데라구야, 아무리 이웃하고 살아가는 자기가 담당한 주민대대를 돌보노라 이른새벽 나갔다가 별을 이고 돌아오는 그의 얼굴을 보리라 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영수염마가 정말 수고많네. 또 주민들 검병검진하러 나갔잖나.》

《아이, 별말씀을. 제 본분일지요.》

이때부터 익은 녀인의 상냥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꾸어뿜어 밝게 웃는 녀인의 얼굴에는 진정이 비껴있었다.

본분.

얼마전에도 저렇게 이야기하며 나의 머리를 지켜왔던 녀인이었다.

나에게는 그가 이웃이기 전에 또의 사이이기 전에 산골마을을 구원으로 지원해간 나의 의동딸처럼 느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며 멀어져

든 일꾼들이 온밤 대를기갈은 비발속을 헤쳤으리라.

위대한 아버지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큰물피해를 위해 군당원회회청사까지 내준 사람들이 바로 저같은 일꾼들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밤새 우리 잠자리를 입자네들이 지켜주었구만. 어서 들어가서 좀 쉬게. 눈에

본분.

그날 아침에 벌써 두번째로 듣는 말이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인민의 편리를 지켜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고 그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하는 미덥고 끝없는 나의 이웃들. 생각은 깊어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각도 자기의 본분을 지켜 분투하고있는가.

로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 청년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고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건설장마당에서 방역전선에서 성실하게, 열

렬하게 진정을 다 바쳐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있는 것인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들, 다름아닌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기때문이다.

창조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너도나도 주인이 되어 온갖 량심을 다 바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풍으로, 기풍으로 되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시련속에서도 더욱 강해지고 난관을 부시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눈앞에 전하의 나날 전사의 본분을 지켜 한복속 서슴없이 바쳐싸운 못잇을 전우들의 얼굴이 우렷이 안겨왔다.

그 얼굴들은 나에게 로병의 본분을 잊지 말고 후대들의 앞장에서 언제나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는 기수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는듯싶었다.

—화성전역으로 가자, 살림집건설장에 애국의 한숨을 보태자.

나는 힘있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본분.

그날 아침에 벌써 두번째로 듣는 말이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인민의 편리를 지켜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고 그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하는 미덥고 끝없는 나의 이웃들. 생각은 깊어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각도 자기의 본분을 지켜 분투하고있는가.

로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 청년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고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건설장마당에서 방역전선에서 성실하게, 열

본분.

그날 아침에 벌써 두번째로 듣는 말이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인민의 편리를 지켜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고 그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하는 미덥고 끝없는 나의 이웃들. 생각은 깊어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각도 자기의 본분을 지켜 분투하고있는가.

로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 청년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고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건설장마당에서 방역전선에서 성실하게, 열

## 조국을 안고 사는 해외동포들

### 이어갈 새 학교문패 (1)

이교과산발이 바라보이는 하나조노에 우뚝 솟은 우리 학교!

올해 봄 드디어 새 학교문패가 걸렸습니디.

《오사카조선중고급학교》

《야! 내 학교야!》

나는 기뻐서 동무들과 큰소리로 불리기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디.

(나도 이제는 우리 학교의 중급부 만이야!)라고 생각하니 긴장되었습니디.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학교문패앞에서 사진찍는것이 행복한 일인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디. 작년 뜻밖에도 앞이 안보이는 공포와 어둠속

에서 지내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나라의 귀중함을 직접 체험하며 중3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러나 새 학기부터 우리 학교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고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디.

그런데 《우리 학교의 귀중함을 더 알기 위해 우리 학교 새 력사발굴프로젝트를 계획하자.》는 의견이 우리 학원에서 나왔습니디.

모두 아무 망설임도 없이 찬성하여 인차 학년을 분조로 정하고 인터뷰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디.

여러 분조마당에서 주고받는 의견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인격으로 그 지역마다 지켜온 학교의 력사를 인터뷰하지 않겠나?》 라는 말에 모두가 《전국의 우리 학교?》 하고 비명을 울렸습니디.

그러나 그날부터 우리 학교를 거점으로 혹가이도로부터 규유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넓혀 우리 학교와 인연이 있는 학교들을 뽑았습니디.

《그렇지! 우리 학교 전 교장선생님이 사업하고있는

시교우학교는 어때?》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으로 사업하시는 교도학교 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해 교도학교가 걸은 력사를 발굴해보자!》

그때 갑자기 《우리가 다 이런 정든 모교는 꼭 해야지!》라고 한 동무의 목소리에 모두 《하하하》 하고 웃음도 터졌습니디.

시교우학교, 가나가와학교, 교도학교, 도호우학교, 각 초급학교들 12교가 넘었습니디.

그러나 결코 쉽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견을 나누다가 동무들속에서는 학교도 잘 모르고 선생님들의 얼굴도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듣고 알수 있을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한번 하자고 한 일이니 다같이 해내자고 격려했습니디.

우리 조는 교보조선중고급학교를 인터뷰하기로 되었는데 중급부 3학년 담임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잘될가?) 하고 긴장조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조동무들의 의견교환은 끝이 없었는데 어느 동무가 《교보중고는 어디에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지리좌위치도 확실히 모르는 자신들이 부러워했습니디.

본사기자



본사기자